

◆ 교회목표 ◆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13)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 - HYUN

발행인: 신성종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교구별 야외예배 및 단합대회

교회학교 교사야외예배 및 각 전도회 모임도

각 교구별 야외예배 및 단합대회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단위의 모임과 함께 전도회별 모임 등으로 각 교구의 5월은 바쁘다.

특히 금년은 교구별 야외예배 및 단합대회의 해이기에 각 교구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 및 계획으로 부산하다. 5월의 휴일은 주로 이런 모임들로 가득차 있다. 지난 해에는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올림픽 한마당을 치루며 우리 모두가 충현의 식구임을 확인했다면, 올해는 각 교구별 모임을 통해 서로 긴밀하게 사귀고 알아나가며, 단합된 힘으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기회가 될 것이다.

각 교구별 모임은 주로 교구내의 공원이나 놀이터를 찾아 많은 사람이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교회에서는 교구 모임을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다. 교구별 모임은 교구에 따라 특색있게 진행되고 있다. 야외예배 및 단합대회에서 더 나아가 전도를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며 새로운 신자를 많이 데리고 나오도록 권하고 시상하는 등 전도적인 측면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한편 5교구에서는 5월 18일 12시부터 교구내 60세 이상되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자체 경로잔치를 열기도 한다.

또한 각 교회학교도 교사 야외예배 및 친교모임을 계획, 준비, 진행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얼굴은 보지만 충분한 대화와 친교의 시간이 부족했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보다 폭넓고 친근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계획하고 있다.

각 전도회 지회도 5월 한달 동안 친교시간을 가지며 가족단위 모임들을 계획하고 있다. 바자회를 통한 불우이웃돕기, 야외가

족모임, 체육대회등 여러가지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요한전도회협의회에서는 부부신앙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더 단합된 힘과 충성스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각자의 일을 더욱 열심으로 감당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진은 5월 7일 선릉에서 모인 4교구 전도단합대회의 모습)



충현기도원 설립16주년 기념 5월 30일~6월 2일, 부흥집회

강사는 김창인 · 신성종 · 유창무 목사

충현기도원은 기도원설립 16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는 부흥집회를 갖기로 했다.

오는 5월 30일(월) 저녁부터 6월 2일(토) 저녁까지 모일 부흥회는 '기도로 새침받자'라는 주제하에 모이게 되는데 강사는 김창인 원로목사와 당회장 신성종 목사, 기도원 지도 유창무 목사이다.

교통편은 충현교회당에서 매일 오전 9

시 - 10시와 오후 6 - 7시 사이에 기도원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적으로 찾아갈 경우는 광주읍에서 곧지암행 일반버스를 타고 대쌍리에서 내려 10여분 걸어서 갈 수 있다.

제3회 2학기 목회자세미나 중강

충현교회 부설 한국교회 성장연구원이 지난 3월 7일 「21세기를 향한 강단갱신과 교회성장」이란 주제로 개강한 목회자세미나 제3회 2학기가 10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난 5월 9일(월) 종강했다.

10주간에 걸쳐 전국의 700여 목회자가 등록하여 참여했다. 매주 월요일 오후부터 1교시는 당회장 신성종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 2교시는 주제에 따른 특강으로 진행됐다. 다음 학기는 9월 5일 개강하며 「한국강단의 변혁과 성장」이란 주제로 11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실업인 선교회에서 특강 「효율적인 기업 세무관리」

강사는 고대 교수 이만우 박사

실업인 선교회는 오는 5월 24일(화) 오후 7시 갈릴리홀에서 세무관리에 관한 특강을 실시한다. 우리 교회의 성도 중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실업인선교회는 조찬기도회, 특강 등을 실시하며 회원들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기도하며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이번에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이만우 박사를 강사로 「효율적인 기업세무관리」란 특강을 실시한다.

특강 후에는 다과회 시간을 갖고 특강에 관해서, 기타 세무문제에 관해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세무에 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은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한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실업인 선교회에는 성도들의 '구인구직'을 도와주고 있다. 문의는 교회 전화(552-8200), 구내 205번으로 하면 된다.

금주의 청지기 훈련 및 연속기도

청지기훈련 - 5월 19, 20일 양일간: 19, 20, 21교구
훈련 미필자 남은 두번의 기회중에 마쳐야
24시간 연속기도회 - 15, 16교구

94년도 청지기훈련이 끝나간다. 앞으로 남은 일정은 금주를 포함하여 두 차례가 남았다. 그동안 훈련 미필자는 남은 기간동안 필히 마쳐야 한다.

금주의 훈련 해당자는 19일(목) 오후 6시 30분까지 교회에 집합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명찰 및 훈련복을 지급받고 인원점검 및 오리엔테이션을 한 후 오후 7시 30분에 기도원행 버스를 타게 된다.

준비물은 성경, 찬송가, 필기도구, 세면도구이고 복장은 충현훈련복에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접수는 교육국에 비치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한편 지난 2월23일에 시작한 94년 직분자 24시간 연속기도회는 금주에는 15교구가 5월 14일(토)부터 19일(목) 12시까지이며 5월 19일(목) 12시부터 24일(화)까지는 16교구이다.

사랑의 헌혈 - 오늘, 본당 앞 광장에서

교회는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사랑의 실천운동본부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헌혈' 운동을 전개하고자 요청해 오며 따라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교회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씩 헌혈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 일시 : 1994. 5. 15(주일)
오전 8:00~오후 3:00
· 장소 : 본당 앞 광장
· 대상 : 전교인

♥ 헌혈할 수 있는 사람

일반적으로 남자는 체중이 50Kg이상, 여자는 45Kg이상으로 정상혈압(최고 100-200mmHg, 최저 60-100mmHg)인 16세 이상의 사람이면 누구나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통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 헌혈자에게 주는 혜택

1) 혈액의 예치, 헌혈증서 발급

모든 헌혈자에게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영구적으로 유효하며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이웃사람도 수혈이 필요할 때 혈액형에 관계없이 헌혈량 만큼 전국 어느 병원에서도 무료로 수혈을 받을 수 있다.

2) 건강 진단의 기회

헌혈 후 Rh 음성혈액형, B형 간염항원, C형 간염항체검사, 간기능 검사 (S-GPT)를 일차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해준다.



역

사를 보면 수 많은 수수께끼들이 있고, 갖가지 부조리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공회 앞에 서신 그리스도', 이것보다 더 큰 역사의 부조리나 아이러니는 없는 줄로 압니다. 의인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문은 악인이 의인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1. 예수님의 재판과정

첫째로, 안나스의 예비 심문입니다(요 18:12-14). 안나스는 그 당시의 실세로 대제사장인 가이바의 장인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모여 먼저 예수님을 심문했는데 이것은 원칙적인 면에서 불법이었습니다. 둘째로, 산헤드린공회에서 비공식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마 26:57-68). 본문에서 말하는 공회는 산헤드린공회입니다.

이곳은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가 마찬가지로 법을 정하는 기관인데 여기에서 본래는 할 수 없는 비공식적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산헤드린공회에서의 공식 재판입니다(마 27:1, 2). 그러나 이 공식재판은 하나의 요식절차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유대인들은 모여서 모의를 했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요 11:53).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자신들의 인기가 하락되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알고 로마당국으로부터 해방될 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로마인들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빌라도의 1차 심문(마 27:14 이하, 요 18:28-38)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형권은 가이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는 수 없이 자기들이 결정한 것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재판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심문해보아도 그에게서 도무지 죄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섯째로 헤롯의 심문입니다(눅 23:8-12). 당시 이 재판에 대해서 헤롯에게 무슨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헤롯은 비록 왕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내릴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이들은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헤롯에게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여섯째로 빌라도의 2차 심문 및 최종 판결입니다(마 27:15-26).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월절 사면령을 핑계로 군중들에게 당시에 가장 악한 강도의 하나였던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저들이 극악한 바라바를 사형시키고 예수님은 놓아주기를 바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구동성으로 바라바를 놓으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사형이라는 최종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판과정이 여섯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그 모두가 불법적이고 악한 자들의 공모였다는 사실입니다.

2. 재판 과정의 위법사항

첫째로 이 재판은 재판 진행 시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간 재판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중요한 사건을 야간에 남모르게 재판을 해치웠다는 것은 현저한 위법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재판장소가 위법입니다. 재판은 정식 장소인 재판정 즉 산헤드린공회에서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제사장인 가이바의 개인 집에서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변호인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변호인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변호인을 허락지도 아니했거니와 변호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넷째로 그들은 허위 증거를 채택했습니다. 그들의 증거라는 것이 허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씌운 죄목은 크게 성전 모독죄와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다섯째로 신성모독에 대한 법적 증거가 없

었음에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께 사형을 인도했습니다. 여섯째로 재판기간과 만장일치가 위법입니다. 미쉬나에 보면 재판은 적어도 이를 이상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하루 저녁에 끝났습니다. 또한 미쉬나에는 '만장일치는 무효'라는 법이 나옵니다. 만장일치란 권력으로 누르거나, 금전으로 매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충현강단



공회 앞에 서신 그리스도

(마 26:58-68)



신 성 중

<목사·당회장>

3. 예수님의 침묵의 이유

첫째로 예수님의 침묵은 왕적인 침묵입니다. 위선적인 종교지도자들 앞에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 다. 둘째는 제사장적인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속죄물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나 양이 잠잠하듯이 예수님은 잠잠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는 선지자적인 침묵입니다.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진리를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거짓증거에 대하여는 침묵하였으나 그의 메시야 되심과 그가 다시 재림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 26:64)

4. 거짓 증인들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거짓증인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 예수님에 대해 열광하고 찬양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라'라면서 경배했던 무리들의 일부입니다. 인간은 마음은 조석변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뻔뻔스럽고 치졸한 모습은 바로 제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데 거짓말과 조롱은 사탄이 쓰기 좋아하는 무기입니다(요 8:44). 둘째로 이들은 무지로 인해서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 소문에 의하면 이렇다더라 하는 것에 따라 판단하였습니다. 셋째로 이들은 왜곡으로 인해 거짓 증거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돈으로 거짓증인들을 매수하고 군중심리로 사람들을 자극하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돈에 의해서 매수당하고, 또 군중심리에 의해서 사람을 따라가는 데로 따라 갔습니다.

5. 본문이 주는 교훈

첫번째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 6:9)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선을 행할 때에 칭찬이나 위로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결국 때가 되어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님처럼 고난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기회를 얻는 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불공정한 재판과정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과 재림하실 것을 끝까지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고난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항상 기회를 이용하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좇아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허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58절)라는 말씀에서 베드로의 용기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으나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멀찍이 좇아갔습니다.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말은 다른 제자들에게 비해 그에게 용기가 있었음을 나타내줍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쳤던 그 말은 포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좇기는 했지만 가까이 따라가지를 못했고 마침내 예수님을 세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좇아 가되 가까이 좇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에 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려고 할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축복을 주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넷째로 교회의 높은 직분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나 성직자들도 예수님을 섬치기에 못박는 데 앞장을 쳤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죄 안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와 여러분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좇아가는 여러색은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북한이 언제 남침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정신적으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런지 모릅니다. 이것에 대항하는 방법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자면 안됩니다. 군대에 가면 밤에 보초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잠자면 죽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자면 죽습니다. 세속에 잠에 빠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사탄의 음모에 순간이라도 걸리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달에

출발! 우리 가정

이 명 숙

(새가정부 회원, 믿음5반)



새가정을 출발한 지 벌써 이년 반이 지났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순간도 제대로 승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인 것을 매일 확인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결혼초에 새가정부 선생님의 권유로 참석하게 되었다. 그냥 한번 가보자고 했던 남편이 "여기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부서"라며 그후 꾸준히 다니고 있다.

또한 담임선생님이 한 주일 동안 숙제를 내주셔서 시작하게 된 가정예배는 일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드리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부부를 새가정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특별히 헌신적인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말씀과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것도 부부가 각자의 삶에 적용하며 나누게 되니 서로 많

이 깨어지기도 하고 상대방을 점차 이해도 해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쳐가는 작은 변화들을 새롭게 체험하며 살고 있다.

신혼초에는 내가 설득하려고 다투기도 하였으나 하나님께 고쳐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맡겨 버리면 어느날부터인가 상대방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은 천국이어야 할 우리의 가정이 나의 불순종으로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는 조심스럽게 주님의 지혜의 음성에 귀기울이려 한다.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집 즐거운 동산

오정희

(새가정부 회원, 믿음5반)



소망찬 하루를 여는 오월의 싱그러운 햇살이 가득히 방안에 비칠 때, 아이들과 남편의 잠든 모습 속에서 평화를 느낀다. 졸린 눈을 겨우겨우 뜨는 아이들을 깨워 축복하고 놀이방으로 보낸다. 선생님과 함께 찬송하며 뛰어 놀며 기도하는 곳이라 마음이 든든하다.

남편과 나는 각자 자기의 일터로 간다. 들뜬 꽃들을 바라보며 출근하는 길은 하나님의 숨겨진 마음을 감상하고 지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게 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주고 받으며 평생 살도록 배우자를 주시고 겸손하게 인생을 배우며 살라고 아이들을 허락

하시고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 이웃을 주신 주님께 영광!

여호와를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일에 임한다. 십일조 선교헌금을 더욱 많이 드리기 위해 이곳 저곳 꿀벌처럼

날아다닌다.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면 발걸음은 더욱 바빠진다.

명랑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도 참 잘 지냈구나. 행복한 하루였음을 느낀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들의 등지로 돌아온 남편을 맞아 식탁을 준비하고 온화한 불빛 아래서 하루의 일과를 털어놓으면 내일을 향한 새 힘이 솟는다.

'여보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따뜻한 손 맞잡고 우리 끝까지 가요. 주님과 함께, 새가정부와 함께.'

징검다리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종 대

(목사, 제4교구, 제12교구, 중등2부 지도)

사랑부 학생인 영이네 가정, 김집사님 댁에서 대심방 예배를 마치고, 이어서 생일축하 순서를 가졌습니다. 오늘이 바로 영이의 생일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김집사님은 기뻐하셨고, 그 기쁨은 모두의 기쁨이었습니다. 영이는 자주 들려 주시는 권사님과 구역장 집사님과 아주 친했습니다. 악수를 하며 하얗게 웃는 영이의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던 어린이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영이는 자주 오지도 못하는 저와 전도사님에게도 그 하얀 웃음을 차별 없이 선사했습니다. 오늘 예배 뿐만 아니라 구역예배 때도 그렇게 기뻐한다는 영이는, 부자유한 육체로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용변보다 강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일 선물을 많이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 영이에게 제일 큰 선물

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선물인 것을 체험하는 영이와 같이 저희들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축복기도를 원한다는 김집사님의 말에 영이의 믿음을 보며,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더 긴 시간을 갖지 못하는 아쉬움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지만, 영이는 섭섭해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말간 마음.....

김집사님은 앞으로 영이가 더욱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불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김집사님의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은 보통 어머니 보다 더 크게 보실 줄 믿습니다. 구역의 권사님, 김집사님의 사랑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이가 저와 심방대원을 감동시키고, 자신을 돌아보게 한 그 큰 사명은 그의 일생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영이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새가정부 세미나 계속 중

오늘 찬양예배 새가정부서 찬양

가정의 달을 맞아 새가정부 주최 세미나가 계속되는 중 오늘은 새가정부 지도 박정규목사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5월 22일은 나연숙 권사(할렐

루야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5월 29일은 윤영탁 목사(협동목사)가 '모범적인 가정'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실시한다.

오늘 저녁 찬양예배에는 새가정부 교사와 회원들이 함께 특별찬양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지휘 하동석, 반주 박은영)를 하게 된다.

물맷돌

전도자의 수고

잔뜩 회의에 차 있는 젊은 지식인에게 무조건 믿어야 한다 신앙은 따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전도자.

끼리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에게 예수 믿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전도자. 두 사람이 공히 틀린 것은 아니나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들은 아니다.

젊은 지식인의 회의에 대한 현학적인 실망이 그에게 신앙을 갖게 하지는 못하며,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빵 한조각이 그의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 전도자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열매가 아닐까 생각된다.

하늘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늘을 올라가라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우선 산꼭대기까지 데리고 가서 하늘을 보여 준 후 하늘에 올라갈 것을 권하는게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하늘로 올라오는 역사 - 그리스도를 주로 알고 - 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산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는 수고는 전도자의 할 일이다.

이런 수고가 어떤이에게는 질문에 대한 성숙있는 대답일 수 있고, 또 어떤이에게는 빵 한조각의 구제가 아닐까?



제31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지난 5월 9일(월)부터 12일(목)까지 제31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우리 교회당에서 모였다. 교단 소속의 전국의 목사, 장로 4,000여명이 참석하여 새벽, 아침, 오후, 저녁 별 순서를 진행하며 나라와 교회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함께 기도합시다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 김창인 목사 : 21일(토) 논산훈련소 진중세례식 집례
· 신성종 목사 : 19일(금) 합동신학교 채플 인도
2. 충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어려움을 겪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함께 하옵소서.
3. 우리나라 국군을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백두산 소나무 찍어 평양에 예배당을 세우고 금강산에 수양관을 세우게 해 달라'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4. 길림성 기독교신학원을 설립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중국의 한족과 중국과 북한을 복음화 하는데 전초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5. 우리나라의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성령의 거센 바람으로 죄악의 세력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6, 7)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이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남녀 교역자님들과 장로님들과 온 충현에 속한 성도님들께 넘치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저는 많은 충현의 형제 자매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염려 덕분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이제야 소식을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몇달을 지나면서 보고 느낀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복 받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주위의 환경이 너무나 예수 믿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듣는 것, 보는 것 등이 쾌락적이요, 세상적이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눈, 코, 귀를 막고 살아야 할 형편인데 한국에서 예수 잘 믿던 성도들도 이곳의 생활이 오래될 수록 믿음이 식어있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예수 믿으며 핍박받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곳은 기도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일본의 교회는 새벽기도 뿐 아니라 저녁예배도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포 교회도 1세대의 나이 많은 분들이 몇 분 기도하러 올 뿐 2-3세대는 거의 없으며 나온다 해도 잠시 묵상하고 가는 정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다 교회학교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있어도 몇 명 모일 정도입니다.

학교에서 주일에 소풍,

선교지에서 온 소식



● 일본 / 김철영 평신도 선교사 ●

일본은 주위의 환경이 너무나 예수 믿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듣는 것, 보는 것 등이 쾌락적이요 세상적이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눈, 코, 귀를 막고 살아야 할 형편인데



운동회, 학예회, 발표회 등 소집이 많은 탓도 있지만 부모나 교회가 무관심해서인 것도 있습니다. 어릴때부터 믿음을 잘 심어주어야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텐데 이들이 어릴때는 교회에 안 나오다가 어른이 되면 갑자기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참으로 앞날이

남을 다 아는데 이곳은 수십만 수백만의 종교가 있는데 전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과 구분이 안되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한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한 종교만 믿기보다는 여러 종교에 참여하여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결혼식은 교회에서, 참배는 신사에서, 장례식은 절에서 하는 식이라 결혼식만 해주는 교회가 많기에 많은 결혼식장이 교회 내부처럼 꾸며져 있으며 (십자가까지) 목회를 하지 않고 결혼만 해주고 생활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가 주일 오전 10시경 예배를 드리고 오후부터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문화적인 차이로 우리와 너무나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일본인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갑자기 밤에 아팠는데 병원은 문을 닫았기에 목사님께 기도좀 해달라고 했는데 인터폰으로 대답은 하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돌아왔습니다. 밤에 남의 집에 찾아가는 것

암담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

은 폐가 되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신앙생활에는 안좋은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본에는 보통 7-80년, 100년이 넘는 교회가 많지만 성도는 2-30명이 보통인데 (그것도 목사 가족, 친척이 대부분) 폐를 끼치지 않으려니까 전도가 거의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니까 목사나 사모가 직장에 나가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주일헌금의 십일조나 기타헌금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또 무교회주의 신자가 많습니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혼자 예수 믿는 사람) 비 성경적이요, 이런 사람때문에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저는 오사카 영광교회(박상영 목사님) 무, 우리 충현에서 처음 예수 믿어 성장하여 목사가 된 분으로 4년전에 총회파송 선교사로 온 분)에 출석하고 있으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다가 지난해 말 빌딩의 한 층을 얻어 예배를 드리는데 30명 정도가 출석하며 초대교회와 같은 뜨거움이 있는 교회입니다.

부족한 저는 일생 교회학교 교사로 세워달라고 기도해왔는데 귀한 직분까지 맡겨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일본말이 서툴러 직접 전도는 못하고, 전도지로 교회를 중심으로 병원, 가정, 역 등지로 뿌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어느 권사님이 일본에 두달 있으니 믿음이 다 식어버려서 다시 충만함 받으려 한국에 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참으로 흑암이 가득하고 악령의 세력이 왕성한 곳이라 늘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충만 받지 않고는 이길 수 없는 곳입니다. 늘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